

# 예비후보 단일화 시작...민주 광주·전남 경선판 요동

광주 서구를 최희용 예비후보 불출마 선언...“이남재 지지”  
다자구도 동남갑·광산을·나주화순 등 합종연횡 움직임  
민주 광주·전남 총선 후보자 56명 지원...경쟁률 3.1대 1

제21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 컷오프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 간 합종연횡이 시작되면서 민주당 경선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에게 맞선 신진 정치세력 간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세대교체 여부도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희용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29일 광주시의 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남재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첫 후보 단일화 선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구를 후보군 중 2~4위권을 형성했던 후보 간 단일화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서구 발전과 공정경제 실현,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며 “지역에서 오랜시간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이남재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장 부합하고 가장 광주다운 후보라고 생각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조만간 예비후보를 사퇴한 뒤 이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서구를 선거구의 경선 경쟁구도는 양항자·이남재·고삼석 3자 대결로 좁혀졌다.

다음달 중순께 민주당의 경선 전 1차 컷오프 발표가 예상되면서 다자 구도가 형성된 광주·전남지역 타 선거구에서도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우세를 보이고 있는 민행배 예비후보에 맞서 박시중·김성진 예비후보 간 단일화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정성·윤영탁·이정화·최영호 예비후보가 경합중인 동남갑에서도 끊임없이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가 6명에 달하는 나주·화순 선거구 역시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한 선

거 판세 변화가 점쳐진다.

이처럼 예비후보들 간 단일화가 진행되거나 물밑 작업이 진행중인 대부분의 선거구가 전직 지역위원장에 맞서는 정치 신인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지역 정치의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간 단일화는 다반사였다”면서 “당원과 지역 내 세력을 확보한 지역위원장에 비해 신진 정치인들이 열세이다 보니, 이번 총선에서도 이들의 단일화가 활발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예비후보 간 단일화 결과에 따라 민주당 경선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예비후보 컷오프 작업이 구체화되면 각 선거구별 예비후보 간 단일화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28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광주는 8개 선거구에 20명,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36명이 지원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2월 5일까지 서류심사와 당내 여론조사를 한 뒤 7일부터 10일까지 면접을 해 컷오프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통한 마음으로 당 떠난다”...안철수 바른미래 탈당

신당 창당 독자노선 모색할 듯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 끝에 29일 탈당을 전격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의원이 신당 창당 등 독자 노선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며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 전 의원은 정계복귀 선언과 함께 지난 19일 귀국한 지 열흘 만에 바른

미래당을 탈당, 독자행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안 전 의원은 “실용적 중도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 나간다면 수십 년(누적된) 한국사회의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해 4·15 총선을 치르는 데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총선이 불과 77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현재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7명 가운데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여서 함께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안 전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지

지도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1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안 전 의원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의 안 전 의원 선호도는 1%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2%)보다도 뒤처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일단 신당 창당에 나섰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바른미래 호남 의원들 손학규 퇴진·비대위 구성 추진

비대위위원장 김종인 영입키로  
대안신당·평화당 순차 통합 목표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가운데 당내에 잔류하고 있는 호남 중진들은 손학규 대표의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대위위원장에는 가능하다면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비대위 구성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9일 주승용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

에서 “결국 최악의 상황이 전개됐다”며 “안철수계 의원들을 제외한 호남 중진 등 당내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가 2선으로 퇴진하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으로 손 대표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하고 설득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비대위위원장과 관련해, “김종인 전 의원이 비대위위원장 역할에 가장 적합한 것 같다”며 “김 전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제3차 신당 문제와 관련, “우선 당 밖의 청년과 전문가 그룹 등 젊고 새로운 세력들과 통합에 나선 뒤, 이

후 대안신당, 평화당과 순차적으로 통합에 나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손 대표도 지난 28일 호남 중진들과 만나 이와 비슷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 대표가 과연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구성에 동의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나 당내 호남 중진들이 목표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손 대표가 과연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느냐가 관건”이라며 “손 대표가 결단한다면 제3차 신당은 오히려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바이러스 한방에 무너진 인간의 자부심



김은영의 '그림 생각'

(298) 박쥐

상에 의해 천년 묵은 박쥐를 잡아먹으면 장수한다고 믿어져서 식용으로도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

우리 조상들도 박쥐무늬를 식기나 의복, 장신구, 가구 등에 그려 넣어 복을 염원하는데 사용해왔다. 반면 서양에서 박쥐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 보인다.

네덜란드 출신의 초현실주의 작가 마우리치 코르넬리스 에셔(1898-1972)는 대표작인 무한원형 시리즈 중 '천국과 지옥'(1960년 작)을 통해 숨은 그림처럼 찾을 수 있는 악마를 박쥐로 묘사하고 있다. 천사와 악마의 형상들이 4중 및 3중 회전에 의해 중심에서 주변으로 한없이 축소 복제하면서 만들어지는 무한한 세계를 보여준다.

천사는 자신의 윤곽으로 악마를 만들고 악마는 그의 윤곽으로 천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얼핏 흑백 문양의 나열로 보이지만 하얀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면 성스러운 천사의 모습이, 검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박쥐를 닮은 악마의 모습



에셔 작 '천국과 지옥'

이 기괴하게 이어진다.

에셔는 도형을 이용해 빈틈이나 겹침 없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테셀레이션'이라는 대칭적 기법을 통해 “선과 악이라는 대립되는 관계도 파괴가 아닌 공존하는 관계”라는 세계관을 보여주고자 했다. 절대선도 절대악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박쥐는 식용으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주었지만 그 안에 무시무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숨어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